

## 초등학생의 우울과 영향요인

### The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unghyun Lee\*, Jeongyee Ba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pression degree of school children and its influence facto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ir mental health promotion, prevention of depression and intervention. For the research subject, this study targeted 487 school children in the 4th, 5th and 6th degrees at 2 elementary schools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from November 1 to 10, 2011. For the research tool, it used depression, self-esteem, academic stress, 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action of family and body image scale. For the method of data analysis, SPSS WIN 19.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verage, percentage,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nalyzed; the influence factors of depression were verifi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ression degrees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found: that of the severe depression group was 13.1%; minor depression group 18.7%; normal range group 68.2%. As a result, a factor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ubjects' depression degree was self-esteem( $\beta=-.34$ ,  $p<.001$ ), followed by academic stress( $\beta=.30$ ,  $p<.001$ ), body image( $\beta=-.15$ ,  $p<.001$ ), relationship with friends( $\beta=-.09$ ,  $p=.023$ ), and satisfaction of family( $\beta=-.09$ ,  $p=.041$ ). These factors showed 54% explanation power of depression. Therefore, through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s, management of academic stress, the support for the positive body image, small group activities for close friendships and parental educ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and intervene

---

\* The 1st author Tel. +82-55-740-1826 E-mail. nurse5615@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1-890-6823 E-mail. jibai@inje.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5, 2015 / Revised: Feb. 11, 2015 / Accepted: Feb. 20, 2015

school children's depression.

**Key words:** depression, students, body image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우울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증진과 우울 예방 및 증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하는 2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5·6학년 487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였다. 연구도구는 우울, 자아존중감,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 대한 만족도 및 신체상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백분율, 독립표본 t 검정,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중증우울군이 13.1%, 경미우울군이 18.7%, 정상 범위군이 68.2%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우울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34, p<.001$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학업 스트레스( $\beta=.30, p<.001$ ), 신체상( $\beta=-.15, p<.001$ ), 친구와의 관계( $\beta=-.09, p=.023$ ), 가정에 대한 만족도( $\beta=-.09, p=.041$ )순 이었다. 이들 요인들은 우울에 대해 54%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학업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신체상을 위한 지지,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집단 활동 및 부모교육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우울 예방과 증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우울, 학생, 신체상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후기인 동시에 초기 청소년기로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생리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정애현, 2000). 근육의 발달은 신장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성호르몬의 분비와 더불어 성적발달 및 성충동의 급격한 증가로 불안감과 과민성이 증대된다(이현직, 2007). 또한 중학교 입학울 앞두고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된다(이미자, 2009).

최근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4)의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초등학생은 16.3%에 이르고,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2008년보다 증가하였으며, 9세~17세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2009년 실시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는 초등학생의 우울증 고위험군은 약 11%로 초등학생의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밝혀졌다(질병관리본부, 2009). 2010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도 우울감과 관련하여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7.4%였으며, 19.3%는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5%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이 중 13%는 자살 시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1). 통계청(2014)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2013년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보고되어 이는 사회학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로 서청희(2003)는 최근에 자살생각을 했던 대상자는 35.8%였고, 11.3%는 자살을 시도 하였으며, 김영선·안혜경(2010) 연구에서는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난수(2007)는 초등학교 시기의 우울은 빈도가 약하거나 표현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며 성인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우울증상 보다는 신체증상이나 행동 변화로 표현되어 문제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희(2002)는 초등학생 우울의 경우 90%정도는 1~2년 안에 호전되지만, 약 6~10%는 성인기까지 영향이 지속되어 학업수행, 대인관계의 손상, 자살 위험성, 흡연, 음주 및 기타 물질남용 문제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술 부족과 부정적 사회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사회 환경으로부터 철수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정영심, 2002).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우울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방적 정신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DelBello & Grcevich, 2004), 초등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백창희, 2006), 학업 스트레스(강난수, 2007), 교사 및 친구와 관계(이영옥, 2000), 가정의 분위기(송은주, 2005; 신성희, 2002), 비만도와 신체상(유미진, 2009; 이분옥, 1999)등이 관련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생의 낮은 자아존중감(백창희, 2006)과 학업 성취도(박해진, 2002), 부정적인 교사 및 교우관계(이영옥, 2000)가 우울을 유발하며, 높은 학업 스트레스(강난수, 2007)와 비만도(유미진, 2009; 이분옥, 1999)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송은주, 2005)가 긍정적일 때 우울이 낮다고 한다.

초등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충분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근거 기반의 접근으로 중재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중재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우울 정도를 밝히고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규명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우울 영향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우울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검정한다.
- 2) 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3) 우울 정도와 영향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다.
- 4)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우울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연구이다.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4·5·6학년 학생 총 487명을 임의 표집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자가 사전에 각 학교장과 각 반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다. 4·5·6학년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질문 문항수가 많음을 고려하여 사전에 설문조사의 목적과 작성요령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검사 시 어려운 낱말이나 이해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53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완전하거나 무응답인 설문지 47부를 제외한 총 487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 2. 연구 도구

#### 1) 우울

Kovacs(1983)가 개발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심후섭(1989)가 번안한 아동용 우울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 도구는 8~13세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3개의 서술문 중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우울평정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이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2점 척도의 Likert 형식이며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 우울정서, 흥미상실, 행동문제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정도에 따라 문항 당 0점에서 2점을 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면 총 0점에서 54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된다. Kovacs의 기준에 따라 총 점수가 10점 이하는 정상 범위, 11점 이상에서 18점 이하는 경미우울, 그리고 19점 이상은 중증우울이라고 보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심후섭(1989)에서는 Cronbach'  $\alpha$  = .96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1

이다.

## 2)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를 전병재(1974)가 번안하고 양명옥(2003)이 초등학생에게 맞도록 수정 보완한 자아존중감 도구이다. 이 도구는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하여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전반적인 자존감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총 10문항으로 5점 척도의 Likert 형식이며, 긍정적 자아존중감(1, 2, 4, 5, 7번)과 부정적 자아존중감(3, 5, 8, 9, 10번)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역으로 계산하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면, 총점은 10점에서 50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osenberg(1965)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3$  이다.

## 3) 학업 스트레스

조봉환(2006)이 개발한 학업 스트레스 도구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시험·성적 스트레스 4문항, 과제 스트레스 4문항, 학습 내용 스트레스 3문항, 학원 스트레스 4문항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5점 척도의 Likert 형식이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면 총점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봉환(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4$  이다.

## 4) 교사와의 관계

성미경(2009)가 개발한 학교생활요인 도구에서 선생님과 관계 5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의 자기보고식으로 5점 척도의 Likert 형식이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면 총점범위는 5점에서 2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선생님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성미경(2009)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2$  이다.

## 5) 친구와의 관계

성미경(2009)가 개발한 학교생활요인 도구에서 친구와의 관계 5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의 자기보고식으로 5점 척도의 Likert 형식이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면 총점범위는 5점에서 2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성미경(2009)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5$  이다.

## 6) 가정에 대한 만족도

강영하(2008)가 개발한 가정에 대한 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8문항의 자기보고식으로 5점 척도의 Likert 형식이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면 총점범위는 8점에서 4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강영하(2008)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8$  이다.

## 7) 신체상

Thelen, *et. al.*(1992)이 개발한 Body Image & Eating Questionnaire for children 척도를 이분옥(1999)이 번역한 체형신체상 도구를, 유미진(2009)이 비만에 초점을 맞추어 재수정 보완한 신체상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의 자기보고식으로 5점 척도의 Likert 형식이며, 그 중 4~12번 문항은 역 채점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면 총점범위는 12점에서 6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분옥(1999)과 유미진(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9$  이다.

##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조사하였고, 비만정도는 체질량 지수(BMI=체중kg/신장m<sup>2</sup>×100)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2) 대상자의 우울 정도 및 영향요인들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ANOVA 검정을 이용하였다.
- 4) 우울 정도와 영향요인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 5)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 6)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자는 47.8%(233명), 여자는 52.2%(254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학년별로는 6학년이 38.0%(185명)로 가장 많았다. 학업 성취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6%(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가 인지하는 가정경제 상태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3%(250명)로 가장 많았다. 동거하는 가족은 '부모와 지낸다'가 90.6%(441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부와 모의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각각 62.2%(303명), 54.0%(263명)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는 저체중이 51.7%(252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 대한 만족도, 신체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울은 평균 8.59(±8.56)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36.79(±7.10)이었다. 학업 스트레스는 평균 37.79(±15.08)이었고, 교사와의 관계는 평균 18.69(±3.96)이었다. 친구와의 관계는 평균 18.37(±3.59)이었으며,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81(±6.31)이었다. 신체상은 평균 41.53(±9.98)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우울 정도는 학업 성취도( $F=9.45$ ,  $p<.001$ ), 가정경제( $F=5.73$ ,  $p=.001$ ), 동거하는 가족( $F=2.87$ ,  $p=.036$ ), 부학력 수준( $t=3.83$ ,  $p<.001$ ), 모학력 수준( $t=2.06$ ,  $p=.040$ ), 체질량지수( $F=9.08$ ,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을 위하여 Scheffe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자가 지각하는 학업 성취도에서 '못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아주 잘함', '잘함',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하여, 또한 가정경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아주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체질량지수에서도 과체중군이 정상체중군, 저체중군 보다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

(N=487)

특성	범주	n(%)	M(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자	233(47.8)	8.00(7.80)	-1.55	.122
	여자	254(52.2)	9.13(8.27)		
학년	4학년	140(28.7)	7.20(7.67)	3.00	.051
	5학년	162(33.3)	9.30(8.39)		
	6학년	185(38.0)	9.02(7.95)		
종교	있다	322(66.1)	8.64(7.98)	0.18	.857
	없다	165(33.9)	8.50(8.23)		
학업 성취도	아주 잘함	55(11.3)	6.20(7.43)	9.45	p<.001 (a,b,c<d)
	잘함	154(31.6)	8.34(8.29)		
	보통	232(47.6)	8.07(7.00)		
	못함	38(7.8)	15.53(9.77)		
	아주 못함	8(1.6)	11.75(11.39)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계속)

특성	범주	n(%)	M(SD)	t or F	p (scheffe)
가정경제	아주 잘 산다	36(7.4)	4.56(5.01)	5.73	.001 (a<b)
	잘 산다	187(38.4)	7.79(7.88)		
	보통이다	250(51.3)	9.60(8.23)		
	어렵다	14(2.9)	11.57(9.48)		
동거하는 가족	부모와 지낸다	441(90.6)	8.3(7.85)	2.87	.036
	모와 지낸다	21(4.3)	13.29(11.22)		
	부와 지낸다	21(4.3)	8.90(8.04)		
	부모와 안 지낸다	4(0.8)	12.25(4.72)		
부학력	아주 잘함	184(37.8)	10.36(8.34)	3.83	<.001
	잘함	303(62.2)	7.51(7.69)		
모학력	보통	224(46.0)	9.4(8.09)	2.06	.040
	못함	263(54.0)	7.9(7.98)		
체질량지수	저체중 (<18.50)	252(51.7)	7.7(7.42)	9.08	<.001 (a,b<c)
	정상 (18.50≤and<23)	189(38.8)	8.7(8.29)		
	과체중 (≥23)	46(13.1)	13.1(9.03)		

## 2. 대상자의 우울 심각도

Kovacs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우울평가기준에 따라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중증우울군이 64명으로 13.1%로 나타났으며, 경미우울군은 91명으로 18.7%이며, 정상 범위군은 332명으로 68.2%를 차지하였다(<표 2>).

<표 2> 우울 심각도

(N=487)

분류	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정상(≤10)	332	68.2	4.05(3.18)
경미우울(11≤and≤18)	91	18.7	13.91(2.30)
중증우울(≥19)	64	13.1	24.59(5.47)

## 3. 우울과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와 자아존중감,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 대한 만족도, 신체상 정도간의 상관관계 검정한 결과, 초등학생의 우울 정도는 자아존중감( $r=-.64$   $p<.001$ ), 가정에 대한 만족도( $r=-.53$   $p<.001$ ), 신체상( $r=-.47$   $p=.002$ ), 친구와의 관계( $r=-.42$   $p<.001$ ), 교사와의 관계( $r=-.30$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 스트레스( $r=.58$   $p<.001$ )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하며,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은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표 3>).

<표 3> 우울 정도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N=487)

변수	우울 r (p)	자아존중감 r (p)	학업 스트레스 r (p)	교사와의 관계 r (p)	친구와의 관계 r (p)	가정에 대한 만족도 r (p)
자아존중감	-.64 (<.001)					
학업 스트레스	.58 (<.001)	-.47 (<.001)				
교사와의 관계	-.30 (<.001)	.42 (<.001)	-.32 (<.001)			
친구와의 관계	-.42 (<.001)	.51 (<.001)	-.26 (<.001)	.48 (<.001)		
가정에 대한 만족도	-.53 (<.001)	.61 (<.001)	-.49 (<.001)	.45 (<.001)	.50 (<.001)	
신체상	-.47 (<.001)	.44 (<.001)	-.40 (<.001)	.22 (<.001)	.25 (<.001)	.32 (<.001)

#### 4. 우울 영향요인

대상자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 대한 만족도, 신체상 변수를 포함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의 범위가 .50~.77, 분산팽창인자가 1.31~1.99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울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beta=-.34$ ,  $t=-7.78$ ,  $p<.001$ )으로 4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학업 스트레스( $\beta=.30$ ,  $t=7.86$ ,  $p<.001$ ), 신체상( $\beta=-.15$ ,  $t=-4.30$ ,  $p<.001$ ), 친구와의 관계( $\beta=-.09$ ,  $t=-2.28$ ,  $p=.023$ ), 가정에 대한 만족도( $\beta=-.09$ ,  $t=-2.05$ ,  $p=.041$ )순 이었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54%였다(<표 4>).

&lt;표 4&gt; 우울 영향요인

(N=487)

변수	B	SE	$\beta$	t	p
자아존중감	-.385	.049	-.34	-7.78	<.001
학업 스트레스	.158	.020	.30	7.86	<.001
신체상	-.123	.029	-.15	-4.30	<.001
친구와의 관계	-.191	.084	-.09	-2.28	.023
가정에 대한 만족도	-.111	.054	-.09	-2.05	.041

※  $R^2=.54$ ,  $F=113.11$ ,  $p<.001$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우울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증진과 우울 예방 및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우울은 학업 성취도, 가정경제, 동거하는 가족, 부학력, 모학력,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우울 정도는 학업 성취도가 ‘못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아주 잘함’, ‘잘함’,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강난수(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오귀화(2002)의 초등학생 연구에서도 성적이 낮을수록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배정미·김윤정(2009)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학업 성취도가 낮으면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기가 어려우며,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비하와 무가치감으로 인해 우울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성적으로 학교생활의 성과를 평가받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교육방식이 아닌, 자신의 강점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정경제에 따른 우울 정도에서는 가정경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송은주(2005), 신성희(2002)의 초등학생 연구에서 가정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한 경우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이한나(2004), 장금옥(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부족은 부모의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최미영, 2009). 현대의 소비사회에서 가정의 경제력은 겉으로 비교되기 쉬운 면이 있기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초등학생은 만족감과 욕구충족이 결여되기 쉽고 의욕의 상실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동거하는 가족에 따른 우울 정도는 ‘부모와 지내지 않는다’ 보다 ‘모와 별거’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

게 나왔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결혼가정의 경우 우울 점수가 정상가정보다 높게 나왔으며(김경아, 2005; 신성희, 2002), 반대로 결혼가정이라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가 강하다면 우울 정도에 차이는 없다는 결과도 있다(오귀화, 2002).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교육과 양육을 어머니가 맡고 있기에 초등학생에게 있어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에 대한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학력에 따른 우울 정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문대 졸업 이상’보다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로 장금옥(2005), 조은숙(2008) 연구에서도 낮은 부모학력은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는 달리 송은주(200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우울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바 있다. 아버지의 경우 한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부모 학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정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지가 필요하다.

모학력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문대 졸업 이상’ 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김혜경(2009)과 장금옥(2005) 연구에서도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음으로 인한 무기력과 무능력은 부모의 양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 또는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최미영, 2009). 학교에서는 대상자 부모의 교육적 배경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13.1%는 중증우울로, 18.7%는 경미우울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난수(2007) 연구에서는 45.8%가 경미우울 수준 이상으로, 전라북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송은주(2005) 연구에서는 경미우울 수준 이상이 41.4%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경미우울 수준 이상은 31.8%로 낮았다. 한편 2005년 서울특별시 소재한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아(2005) 연구에서 경미우울 31.46%, 중증우울 7.08%로, 본 연구 대상자가 경미우울은 적었으나 중증우울은 13.1%로 더 높았다. 다른 우울 도구로 측정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2009년 실시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밝혀진 초등학생의 우울증 고 위험군은 11%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09). 2012년 부산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행동발달 실태분석 및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우울장애가 19.9%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우울장애가 33.3%로 나타나 우울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부산시교육청,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5.3%가 지난 일주일 중 정서상태에 대해 ‘슬프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1년간 자살생각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16.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최근 정신건강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예방적 정신건강 측면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우울, 불안,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일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하영신, 2007). 초등학생 우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울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선별검사, 정신건강교육 및 상담프로그램등과 같은 학교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정신보건센터, 학부모,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초등학생의 우울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우울에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나왔다. 이는 백창희(2006)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초등학생은 우울 경향이 높았다는 결과와 같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Difilippo & Overholsen, 200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긍정적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우울해지고 더 쉽게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지은선·장미희, 2010).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대현(2010)의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대인예민성, 적대감, 불안, 우울)에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강난수(2007)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우울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학생, 고등학생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정, 2009). 중학교 진학을 앞둔 고학년 시기이기에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처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신체상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연구를 살펴보면 비만도가 높을수록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김정화, 2000; 이희연, 2004; 정순돌, 2006; 황옥련, 2003), 신체상과 정신건강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미진(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한상숙(2006)의 초등학생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졌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비만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학생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Mendelson & White, 1982; 이분옥, 1999). 신체상과 더불어 체질량 지수에서는 과체중일 때가 정상 체중, 저체중일 때 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 하태호(2007)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 초등학생의 경우 정상체중 학생보다는 우울, 불안, 위축되어 있었으며, 이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김정화, 2000; 정순돌, 2006). 과체중은 외모에 대해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 과체중이 외모의 불만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과체중인 경우 정상체중을 가졌을 때 보다는 심리, 사회, 신체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며, 이로 인해 차별당하고 놀림을 받음으로써 우울이나

열등감, 자기부정, 자기 비하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한다(김경아, 2005). 따라서 마른 외모를 미의 기준으로 삼은 사회적 편견을 지양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아름다움을 나이와 신체조건 등 획일화된 기준 아래 한정하지 않고 더욱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모보다는 마음, 즉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적 기반과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및 자신감을 길러주는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 할 것이다.

친구와의 관계는 초등학생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연구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고독감과 갈등,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오귀화, 2002; 심혜경, 2005), 중학생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이한나, 2004). 다른 초등학생 연구에서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저하되었다는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강난수, 2007; 송은주, 2005; 신성희, 2002). 정은숙(2004)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친구의 지지를 가족이나 교사 지지보다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Arnett(2000)는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친구가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친구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소집단 활동 및 특별활동을 지지하고, 특히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초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나타났다. 우울과 가정에 대한 만족도 간의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으나 천왕성(2004)의 초등학생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과의 식사 횟수 및 그에 따른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경우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낮았다(송은주, 2005; 신성희, 2002). 따라서 성장하는 초등학생에게 있어 가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육태도 및 가족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기술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영향요인을 밝혀, 정신건강증진과 우울 예방 및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 학업 스트레스, 신체상,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변화가 가능한 요인으로서 통합적인 정신건강관리체계의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기에 현재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우울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그 효과를 검증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신체가 급성장하는 시기이므로 부정적인 신체상을 교정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중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개 도시의 초등학생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표집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반복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우울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그 외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의 변인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난수. 2007. 초등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영하. 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 김경아. 2005. 초등학생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대현. 2010.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선, 안혜경. 2010.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2(3): 1379-1399.
- 김정화. 2000.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신체상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정. 2009. 학업 스트레스, 통제소재,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정미, 김윤정. 2009. 청소년 우울의 인과적 구조분석. 스트레스연구. 17(3): 295-305.
- 백창희. 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아동 자아존중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부친승헌 교회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12.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요약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2012. 학생 정서·행동 발달 실태분석 및 진단. 부산광역시교육청.
- 성미경. 200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청희. 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은주. 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업 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성희. 2002. 학령기 아동의 우울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혜경. 2005. 아동 우울과 지각된 교우관계, 교사,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후섭. 1989. 자기주장훈련이 아동의 우울성향, 주장행동, 귀인양식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옥. 2003.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 몰입정도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성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귀화. 2002. 초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진. 2009. 초등학생의 비만도, 신체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 이미자. 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 효과 탐색.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분옥. 1999.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따른 절식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옥. 2000. 일부 초등학교 아동의 우울수준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하나. 2004.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직. 2007. 초등학생의 수영 참여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연. 2004. 비만아동의 비만정도에 따른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금옥. 2005. 일 초등학교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병제.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lity. 연세논총. 11: 107-124.
- 정은숙. 2004. 기질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순돌. 2006. 초등학생의 비만정도, 신체상 만족도,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숙. 2008.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 요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봉환. 2006.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아동교육. 15(3): 5-21.
- 지은선, 장미희. 2010.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40(5): 642-649.
- 질병관리본부. 2009. 제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2011. 제6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 천왕성. 2004.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영.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4. 2013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한상숙. 2006. 초등학생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와 자아개념, 정신건강과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영신. 2007.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태호. 200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비만여부와 성별에 따른 신체상 만족도,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

- 제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I-조사 결과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옥련. 2003.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집단 따돌림정도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rnett, J. J. 2000.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Prentice-Hall, Inc.
- DelBello, M., Grcevich, S. 2004. Phenomenology and Epidemiology of Childhood Psychiatric Disorders that may Necessitate Treatment with Atypical Antipsychotic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5: 12-19.
- Difilippo, J. M. and J. C. Overholser. 2000.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2): 155-166.
- Kovacs, M. and A. T. Beck. 199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J. G. Schulterbrandt and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New York: Raven Press.
- Mendelson, B. K. and D. R. White. 1982. Relation between Body-esteem of Obese and Normal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 54: 899-905.
- Thelen, M. H., A. L. Powell, C. Lawrenu, and M. Kuhnert. 1992. Eating and Body Image Concerns Amo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1-46.

---

**이승현:** 인제대학교 간호학 박사 수료하였으며, 현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신건강관리(우울, 자살)이며, 현재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가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이러폰 사용이 대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nurse5615@hanmail.net).

**배정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 학위(논문제목: 산후 우울의 이론적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1996년)를 취득하였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신건강관리(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재난심리지원),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등이며, 현재 인제대학교 국제안전도시 연구소장, WHO CCCSP 국제안전도시 공인 심사위원, 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장, 부산광역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센터장,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심리지원센터장, 부산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대한손상예방협회 부회장, 재난심리지원센터 연합회 부회장,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 직무스트레스학회 이사, 부산시 창의시정연구 위원회,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사업자문단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Development of Web-based chil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Busan Safe City WHO Certification Project”, Inauguration of the first Psychological Support Center for Disaster Victims in Korea”, Development of User-centered Health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Depressive Symptom Management”, “해외 이민 한국인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웹기반 지능형 전문가시스템 개발 및 적용”,

“NECA원탁회의 합의문: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각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해결책은?”,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대비 재난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등이 있다(jibai@inje.ac.kr).